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서울휴병원 이영균 원장

전신 마취·조직 손상 없이 척추 질환 치료

약물 치료·절개술 대안

내시경 삽입 육안 확인

합병증·후유증 최소화

허리나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다양한 척추질환의 치료법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 중 하나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손꼽히고 있다.

척추질환은 증상 초기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며 이러한 치료의 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예전보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신경과 주변 조직이 달라붙어 유착이 일어난 경우는 보통의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수술적 치료는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고, 비수술적 또는 최소 침습적 치료를 먼저 권유하게 된다.

◇디스크 절제 수술=현재 약물 및 물리치료, 신경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심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주된 치료 방법은 환자를 전신 마취한 후, 2-3cm정도 피부 절개 후 디스크를 절제해 내는 미세현미경 수술이다.

하지만 이런 절개를 통한 수술 치료는 전신 마취 내지는 척추 마취를 해야 하고 디스크를 절제해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뼈나 인대, 근육 등의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또 고령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후유증의 위험까지 있다.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시술=하지만 이제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디스크



서울휴병원 이영균(가운데) 원장이 척추질환 분야 전문의들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연하고 있다.

크를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또한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및 MRI 상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허리 통증을 원인까지 찾아낼 수 있다. 바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시술이다.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서 초기 위암이나 혹(용종)을 제거해 내듯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꼬리뼈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유착 부위 및 섬유화, 파열된 디스크 조직을 레이저를 통해 제거해냄으로써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위해 우선 꼬리뼈 부분을 국소 마취한다. 이어 약 3mm 정도의 주사 바늘 구멍을 통해 각각 지름 1mm의 내시경과 레이저를 탑재한 지름 3mm의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 구멍에 삽입

후,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미세현미경 수술의 단점인 정상 조직의 손상을 피하면서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후유증 최소화=수술적 치료는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흉터가 남지만 꼬리뼈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 다음날 퇴원도 가능하고 흉터 또한 남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령 등 수술 위험이 있는 환자에도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시술 테크닉의 발달로 기존에는 절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하게 파열된 디스크 환자들에게

도 절개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척추수술은 대형수술이라고 생각하던 때는 지났다. 하지만 척추 관련 질환은 증상과 원인이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신경 근처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시술로서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허리 디스크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은 그것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허리 통증을 주된 원인이 잘못된 자세임을 기억하고 평상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스스로 허리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은 지난 12일 '제1회 광주시 치매예방관리 워크숍'을 열어 유관기관과 치매 예방·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치매, 지역 사회가 함께 대응한다

조선대병원 '치매관리 워크숍'

조선대병원이 치매예방관리 및 광주시·전국광역치매센터와 통합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광주시 치매예방관리 워크숍'을 지난 12일 의성관 감동국홀에서 개최했다.

조선대병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전국광역치매센터, 치매국책연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시립요양병원 관계자와 교직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치매예방·치료를 위한 현재 추진 상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치매는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령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100만명에 이른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예방연구 및 조기 개입으로 치매 유병률 30% 이상 억제를

목표로 조선대병원과 조선대 치매국책 연구단에서는 한국표준 뇌지도도를 만들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혈액바이오 마커를 통해 유전적 원인을 분석해 치매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 치매관리현황 및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

이상홍 조선대 병원장은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복지가 조화된 사회 전체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선대병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치매국책연구단, 광주과학기술원, 광역치매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나눔 의료로 해외 역량 키운다

조선대병원의 해외 의료기관들과의 나눔 의료가 활발하다.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최근 캄보디아 헤브론병원과 네팔 트리분대학 병원과 협약을 맺으며 해외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조선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헤브론 병원은 2007년 한국의사들이 연합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만든 병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환자를 위해 무료 진료와 수술 등 나눔의료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 중 조선대병원 수술팀을 이끈 비뇨기과 김철성 교수는 캄보디아 최초로 요관경화 요관절제술, 복강경하 신낭종제거술 환자 4명을 헤브론병원에서 수술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김경중 대외협력실장이 헤브론병원을 방문해 의료인력 교육 및 의료봉사활동, 의료지원 활동 등을 지속

하기로 김우정 헤브론병원장과 협력 체결했다. 현재 조선대병원은 해외의료봉사 활동 중 수술이 어려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 수술을 준비 중이다.

네팔 트리분대학, 트리분병원과도 의료봉사활동을 바탕으로 그 인연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5월 네팔 대지진 참사 현장에 광주시와 협력해 긴급 파견된 조선대병원의료지원단의 의료 및 구호 활동을 통해 상호 교류를 맺었다.

이상홍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해외 의료기관과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일사단결의 의료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통해 희망을 선물하도록 앞장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일본서 심근경색증 학술 토론회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사진)와 일본국립순환기센터 야수다 박사가 한국인-일본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공동 심포지엄(KAMIR-JAMIR Joint Symposium)을 오는 18일부터 3일간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한다.

일본심장학회 기간 중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본의 심장학 명의 100여명

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여 양국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KAMIR(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심장혈관 스텐트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또 전남대병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CNUH 스텐트(일명 Tiger 스텐트)와 전남대병원이 일본·미국에 특허 등록된 다양한 심장혈관 스텐트를 소개하고, 심포지엄을 통한 KAMIR-JAMIR 공동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연구를 통해 동양인에 적절한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법과 새로운 약물요법 및 심장혈관 스텐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KAMIR(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은 지난 2005년 대한심장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10년 동안 5만8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현재까지 160편(이중 SCI 145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개피할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